

110V/220V 겸용제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시기

1. 추진배경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증가하는 비율로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주요 정책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경제성장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용이하지 않다. 수력발전소는 수몰등 환경변화와 건설비용이 막대하고 적절한 장소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쉽지 않다.

또한 금년 여름에 전력난으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듯이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면서 전력예비율이 5% 이내로 낮아져 자칫 제한 송전을 해야 할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다행이 그런 사태까지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발전소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막대함을 감안할 때 절전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중 110V/

220V 겸용제품에 대하여 220V 전용제품의 생산 및 수입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2. 110V/220V 겸용제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

공업진흥청에서는 220V 전용제품의 생산에 따른 제조업계의 이행가능성, 새로운 제품설계에 따른 부담, 소비자의 이익, 한국전력의 승압 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자료 분석 및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공업진흥청은 제조업계, 동자부 및 한전등과 협의를 거쳐 110V/220V 겸용제품제조 및 수입금지 계획을 수립하여 '92년 9월 2일에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8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전력소비가 많은 전기냉장고 11품목은 '93년 1월 1일부터 220V 제품만 생산 또는 수입하도록 하였으며 '93년 7월 1일부터는 선풍기등 15품목이 적용되며 '97년 1월 1일까지는 197개 품목이 220V 전용 제품만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기타효과

'92년 6월말 현재 220V로 승압된 전류가 공급되는 가구수가 80%에 이르고 있어 220V 전용제품의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겸용제품을 생산하므로써 생산비 및 전기소모가 증가되어 국가적인 손실이 적지 않았다.

향후 220V 전용제품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제조원가가 2% 절감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A/S부담 감소등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며 연 322억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제품을 110V로 사용할 경우 220V에 연결하여 사용할 때보다 평균 8~9%의 전기가 더 소모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220V 전용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제품손실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승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으나 송전에 따른 손실량이 감소되고, 220V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전력의 효율이 높아져 연 37만kW의 전력생산을 증대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공업진흥청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금번 공업진흥청에서는 '92. 10. 10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공업진흥청 제92-771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귀사의 품질관리 업무 및 형식승인 유효기간갱신 등의 절차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대 상 지 역	장 소
1992. 11. 9 14:00 ~ 16:00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제조업체	공 업 진 흥 청 (대 강 당)
1992. 11. 10 14:00 ~ 16:00	경북, 대구지역 제조업체	경북지방공업기술원 (회 의 실)
1992. 11. 11 14:00 ~ 16:00	부산, 경남지역 제조업체	부 산 시 청 별 관 (6 층 회 의 실)
1992. 11. 12 14:00 ~ 16:00	광주, 전남북지역 제조업체	전남지방공업기술원 (회 의 실)
1992. 11. 13 14:00 ~ 16:00	대전, 충남북지역 제조업체	충남지방공업기술원 (회 의 실)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